

서로 사랑하라

신학박사 조 덕운

[요한복음 13:34-35]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새 계명이니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별도로 주신 새로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은 구약의 십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이므로 십계명과 밀접히 연관된 계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크리스찬들이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십계명을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바탕 위에 행해지는 사랑의 모범이라는 의미입니다. 주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주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서 형제들을 사랑한다면 십계명의 부모 공경, 이웃 존중과 배려의 계명들을 당연히 지키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아가페(agape) 사랑은 인간적 사랑이 아니며, 육적 사랑도 아니며, 이익에 바탕을 둔 사랑도 아니며, 자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랑도 아닙니다. 브리타니카 백과사전은 아가페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지신 사랑으로서 육적 사랑인 에로스(eros)와 형제간의 사랑인 필리아(philia) 등과 대조되는 지고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정의 합니다. 혹자는 창조주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신 전지 전능한 분이므로 이러한 사랑을 보이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너무나 제한적인 존재이므로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가페 사랑을 인간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 즉 성자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 이 세상에 보내어 그를 통하여 자신의 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에 다음과 같이 부언하셨습니다.

34 절.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남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여도, 누가 높은가 논쟁해도,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도,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에 기도로 동참하지 않고 피곤을 못이겨 잠만 잤어도, 권력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 하여 예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참을성 있게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며, 그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항상 제자들의 주의를 성부 하나님께로 돌리려 애쓰셨습니다. 그러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가장 손해보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가페 사랑은 '선한' 목적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할 한 마리의 속죄양으로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가페 사랑은 '계산적' 사랑이 아니고 '희생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 사랑을 하려면 형제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거나, 손해 보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낮은 자리로 물러나거나, 때로는 아픔을 당해도 된다는 이타적 자세가 그 바탕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3 장에 아가페 사랑에 관하여 잘 표현하였고, 또한 다음과 같이 아가페 사랑의 실천 방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15:1-3] 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리라. 2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 주어야 할지니라. 3 기록된바, 주를 모욕한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함과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이기적 생각, 나의 유익을 기본적으로 확보한 후에 여분의 시간과 자원을 남을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우선이고, 나의 목표를 확보한 후에 하나님의 일, 남을 사랑하는 일을 하겠다는 이기적인 자세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모범을 내 인생에서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야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30 년 전쟁'을 통하여 신교와 구교 사이에 전쟁하여 서로 많이 죽이고 해를 끼쳤습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의 면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이탈해 있으면 우리가 심판석에 설 때에 주님의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파 간에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행위를 한다면 심판석에 설 때에 주님 앞에서 할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 때에 재판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큰 책망과 질책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들끼리 서로의 차이를 부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상대방의 취약점을 보완해 주는 도량과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이 계명을 주신 목적, 즉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www.douglaschoministry.net

후원: 그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Douglas Cho Ministry

P.O. Box 501, Cross Junction, VA 22625-0501

Or use Paypal to send support to dwcho4771@gmail.com

한국: 신한은행 송금 계좌 110-008-655930 [예금주 조덕운]